

설날

명절 가정 예배

인도자: 각 가정의 대표

목 도 인도자

여호와와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14)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함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믿음이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함께

찬 송 예수 우리 왕이여 다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신앙고백 사 도 신 경 다함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
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
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 도 인도자

말씀봉독 잠언 3장 5-6절 다함께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중신교회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앞날을 궁금해 합니다.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것을 믿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새해의 목표를 정하고 길을 선택하기 전에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합시다. 양은 제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릅니다.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뜻대로 사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새해 늘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해 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날 조차도 먼 훗날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선으로 바꾸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혹시 힘든 시기를 지나게 된다면 주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셋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인격적이신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지혜,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해보려 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맡아 인도하시려 해도 그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온 삶을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심 따라 나아갑시다. 그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하여서 새해 우리 가정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며 권위에 순종하고 조상을 추모하는 화목하고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아멘!”

한 명씩 돌아가며 선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_____.”

1. 주의 곁에 있을 때 맘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2.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3.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후렴)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